

“고향말, 지속해야 할 삶의 언어…관심 커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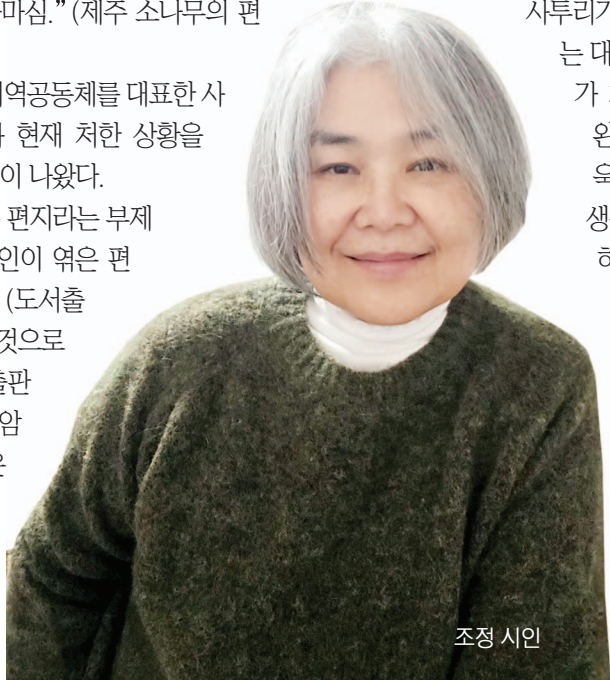
영암 출신 조정 시인 편지 모음집 ‘마음’ 엮어
전라도 등 각지 사람 15명 ‘말’로 정체성 탐색
사투리 처한 현실 상가…이달까지 담양서 창작

“아무튼, 평하니 집 안을 한 바퀴 뱅 둘러봤는디 꺼덕었습니다. 뽕강게 단물 들고 꺽꺽한 걸 골라 따서 노랏 먹을 재미로 애오라지 그 생각만으로 올라가 나궁글고 말았던 아버지의 감낭구도 해거리 없이 겁나 열렸습니다.” (광주 조성국 시인의 편지 중에서)

“이제라기나 얼굴은 이저불어 젊주마는 아령 오래되어도 한 여름 내내 입영 다닌 옷, 그 삼베 옷은 잘 기억나예. 거기서도 그 옷 입영 여름을 보내명 살암신가 마심. 속이 다 비치는 곱닥한 삼베옷 입영 이 올레 저 올레를 한들한들 걸어 다니명 살암신가마심.” (제주 소나무의 편지 중에서)

이 멘트처럼 지역공동체를 대표한 사투리의 정체성과 현재 처한 상황을 진단해본 단행본이 나왔다.

고향말로 쓰는 편지라는 부제를 달고 조정 시인이 엮은 편지 모음집 ‘마음’ (도서출판 님)이 그것으로 단독 기획으로 출판을 도모했다. 영암 출신인 조 시인은 지난 2022년에 1960년대 전남 영암 지역에서 살던



조정 시인

여성들의 실화를 서사시로 옮긴 ‘그라시재라, 서남 전라도 서사시’ (이소노미야 刊)를 펴냈다. 이 시집을 펴낸 뒤 2023년 고향 지역에 자리한 영암 도서관 초청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어 전라도 사투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조 시인은 타지에 나가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더 전라도 사람들의 면면한 역사와 강인한 생명력의 표현 매개체이자 광의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삶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전라도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저자 역시 사투리가 갈수록 그 존재가 위협해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사투리가 사적 영역으로 내몰리는 대신 공적 자리에는 표준어가 차지하고 있어 확장성이 완전 가로막힌 것이다. 더욱이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생활 풍습이 다문화가 아닌 하나로 균등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파에 힘입은 표준어의 위세 앞에 점점 몸집이 작아지고 있는 것이 사투리가 처한 현실이다.

작가는 되도록 국내 모든 지역의 사투리를 응시했다.



미국에서 출간된 루이스 카딩턴의 ‘Early Years Of a Traveler’ 그림을 맡았던 조미화씨의 작품으로 수록된 표지.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 편안한 마음을 모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전라남북도를 비롯해 제주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평안남도 등 전국 각지에 뿌리를 둔 15명을 참여시켰다. 이들의 직업도 천차만별 다양하다. 시인, 아동문학가, 소설가, 섬마을학교 교장, 방송작가, 환경활동가, 목사, 기자, 농부, 통일활동가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사투리, 방언, 뱃말 등으로 불리는 각자의 고향말로 쓴 편지를 통해 표준어로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깊은 속내를 전한다. 참여저자들

로는 동동 (본명 김민선 부산), 김부원 (진천), 김양진 (삼척 북평), 김윤환 (안동), 김은호 (강릉), 목정윤 (하동), 박성울 (강릉), 선안나 (울산), 유순예 (진안), 윤수희 (평양), 이영일 (흑산도), 이중섭 (고흥), 이희출 (서산), 조성국 (광주), 소나무 (본명 진명희 제주) 등이다.

더불어 필자들은 “표준어로 쓴 편지의 중심이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다면, 고향말로 쓴 편지의 중심에는 ‘우리가 누구였는가’가 배어 있다”고 말한다. 고향말로 글을 쓰는 것은 감정을 숨기

기 어렵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정서적 위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작업이기에 그 과정 자체가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 된다는 믿음이다. 이 예사롭지 않은 책을 넘기다 보면 독자들은 마치 잊었던 고향을 찾아가듯 아련하고도 아름다운 우리 말글의 매력에 빠진 자신을 발견한다.

조 시인은 각 편지 뒤에 붙인 지역말 풀이에서 지역과 말을 띄어 쓰는 것이 맞춤법에 맞지만 이 책에서는 이것 대신 지역과 말을 붙여 하동말이나 진천말처럼 고유명사화했다. 고향말들을 인격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떤 말들은 표준말 띄워쓰기에 맞춰 교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향말의 리듬을 살리기 위한 의도였다.

저자인 조정 시인은 서문을 통해 “고향말들이 표준말에 잠식되고 있으며 많이 잊혀졌다. 세계적으로 2주마다 하나씩 부족어와 민족어가 소멸되고 있다고 한다. 겉걸이 다채로운 문화가 스며든 말, 역사가 깊은 말들의 소멸을 막아서는, 조그만 능동성을 편지로 표현해본 셈”이라면서 “흘러간 시간 속의 정겨웁만을 강조해서 현재성을 제거하는 고향말은 지속성이 없다. 이 모음집의 편지들은 고향말을 미래에도 지속해야 할 삶의 언어로 삼았다. 사회의 구조를 돌아보고 사유의 그릇을 넓혀주는 편지글들을 통해 고향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표지그림은 광주에서 성장한 조미화씨가 그렸다. 미국에서 출간된 루이스 카딩턴의 ‘Early Years Of a Traveler’와 국문판 ‘양남을 그리워하다-어느 여행자의 어린시절’의 그림을 맡았었다.

조정 시인은 담양 문학레지던스 ‘글을놓는집’ (세실원)에 지난해 11월 입주해 2월까지 머무며 창작에 집중할 계획이다. 출간기념 낭독회는 21일 오후 2시 광주 기억채방.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가 폭력 앞 무기력했던 개인의 좌절 조망한다

권승찬 작가 ‘무기력한 풍경’ 주제전
27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장흥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재조명

“이 작업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국가 폭력의 현실 위에 놓인, 무기력한 개인들의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겉으로 보기에 이 풍경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깊은 가슴 아픈 상처가 응축되어 있다. 바로 그 침묵 속의 감정이, 어떤 설명적인 언어보다도 더 강하게 관람자의 마음을 건드린다.”

이 멘트는 권승찬 작가의 작품을 보고 정현기 대표 (호랑가시나무창작소)가 한 말이다. 권승찬 작가가 지향하는 작업 세계는 국가 폭력과 무기력한 개인들의 감정, 가슴 아픈 상처들에 모아진다. 그 낭 감정이나 정서의 과열없이 작업을 해 나가도 될 법하지만 이런 것들을 차마 보고도, 알고도 눈 감을 수 없기에 예술 안으로 끌어들여 형상화를 시도한 것이다.

권승찬 작가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기획으로 마련돼 지난 2월 개막, 오는 27일까지 아트폴리곤에서 열리는 ‘무기력한 풍경’ 타이틀전은 여러 비극적 사건들을 짚는다. 출품작은 페인팅 65점, 영상 2점, 설치 4점 등 총 71점.

먼저 작가는 한국전쟁 직후 전국 각지에서 자행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조망한다. 이를테면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출발점으로 한 권승찬 작가의 연작 프로젝트로, 사건을 과거의 비극으로 고정하지 않고, 기억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국가 폭력의 구조와 그 이후를 살아가는 개인의 감각을 조율해 들여다본다.

특히 국민보도연맹은 한국전쟁 시기 좌익을 가려내고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 주도로 운영된 조직이었으나 실제로는 정치 활동과 무관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명부에 포함됐고, 전쟁 발발 직후 이들은 재판이나 법적 절차 없이 ‘집단지위협’이라는 논리 속에서 집단적으로 처형한 것이 팩트다. 피해 규모는 최소 10만명에서 최대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건의 전모와 책임은 지금까지도 온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서 민간인들

이 집단 학살돼 바다에 수장됐다는 기억을 계기로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작가는 전남과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학살지, 매장지, 수장지를 직접 찾다니며 현장 조사와 리서치를 지속해 왔다.

이 전시는 2024년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선보였던 작업 이후, 조사 범위와 매체를 확장해 완성한 결과물로 이해하면 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설치, 비디오 작업을 접할 수 있다. 작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매장지 65곳을 찾아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했으며, 그 장소에 묻혀 있었거나 여전히 묻혀 있을 피해자들의 육신과 하나였을 흙을 수집해 설치작업으로 제시한다. 비디오에는 작가의 이동과 체류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기며, 회화는 설명 없는 풍경을 통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한다.

아울러 회화 작업에서 새가땀게 탄 목탄의 검은 흔적들은 분홍색 종이 위에 그어지고 스며들며 풍경을 형성하는데, 무심하고 무감각한 풍경을 분홍색의 바탕 위에 짓눌러진다.

그때 활용한 목탄의 흔적은 드러난다. 연약하고 밝은 색면 위에 남겨진 목탄의 흔적은 기록되지 못

한 폭력과 말해지지 않은 기억이 현재의 표면 위로 배어 나오는 방식을 암시한다. 분홍색의 종이는 피부처럼 연약한 현재의 시간을 연상시키고, 그 위에 얹힌 검은 흔적들은 연소와 소멸의 잔재로서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흔적처럼 남아 있다.

작가의 회화 속 풍경은 들판, 바다, 숲, 길과 같은 평범한 장소들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화면에는 어떤 사건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 풍경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장소들은 한때 국가 폭력이 실제로 작동했던 자리이자, 이후 아무 설명도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공간들인데, 여기서 교묘한 평온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기억이 남긴 침묵에 가까운 것으로 접근하면 된다.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묵도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관계자는 이 전시에 대해 “‘무기력한 풍경’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특정 시대의 비극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전시는 과거의 한국과 현재의 세계를 나란히 놓으며,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생명과 존엄이 삭제되는 구조를 응시한다. 그리고 국가 폭력 앞에서 무력했던 개인의 좌절,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를 묻는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회 에이프캠프’

내달 12일까지 온라인 통해 신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아르코)는 오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 마곡스퀘어볼룸A에서 개최되는 ‘제5회 에이프캠프(APE CAMP)’의 국내외 참여자를 모집한다. 에이프캠프는 예술가(Artist)·기획자(Producer)·기술전문가(Engineer)가 한 팀을 이뤄 예술과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실험하는 융복합 협업 프로그램으로, 2022년 시작 이후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이번 캠프는 기존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확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팀 매칭을 통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결과로 도출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피칭한다. 또한 마지막 날(6월 16일)에는 해외 참가자의 한국 문화 이해를 돕고 국내외 참가자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팸투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캠프 첫 프로그램으로 ‘제1회 아르코 예술기술융합 청년 포럼’을 신설한다. 본 포럼은 국제컨퍼런스에서 다루는 완성도 높은 사례 발표와는 달리, 청년 창작자·연구자·기업 종사자가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교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후 에이프캠프 협업 과정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모집인원은 총 80명이며, 국외 40인을 별도 선발해 ‘글로벌 캠프’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술 부문으로는 문학, 연극·뮤지컬,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39세 이하의 예술가 및 기획자라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기술 부문에서는 무대조명, 음향, 영상 등 공연 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AI, 실감융합, 로봇, VR·AR·XR, 메타버스, 모션캡처,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 분야와,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지질학 등의 기초과학 기반 기술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 간 언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인공지는 기반 통역 시스템을 도입해, 영어 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도 협업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견을 교환,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아르코 공식 누리집(ark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2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권승찬 작가가 ‘무기력한 풍경’ 타이틀로 오는 27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전시를 갖는다. 사진은 전시에 출품된 권승찬 작가 작품.